

“무주다운 무주·군민 행복 실현”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영상 시무식 갖고 뉴딜사업 발굴·실현·지역특색 맞춤형 정책 개발 등 주력키로

무주군은 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헌담 참배 후 시무식 단상에 선 황인홍 군수는 “우리 군은 올 한 해 코로나19가 바꾼 세상과 뉴노딜 시대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뉴딜과 지방분권, 인구구조의 변화에 보다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 시무식을 진행했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여성과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나아가 주거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임산물 생산과 유통 방식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마을 거점의 생활 인프라를 순환·연결할 계획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오직 무주다운으로 변화하는 현실의 경쟁력을 갖추나갈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2021년 한 해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뛰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올해 국립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적산산성 종합정비, 복합문화도서관 & 반다센터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매진할 계획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해 무주를 무주답게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할 무주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뉴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발맞춰 무주형 뉴딜사업 발굴과 실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뉴딜 전략팀을 중심으로 공무원 각자가 맡은 업무를 최적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주민주권, 자치권의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능률성 향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색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다양한 수요에

도 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꼬리표가 성장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황인홍 군수는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공동화에

“수적천석” 뜻 품고 끊임없이 노력해 소기의 성과 이루자”

진안군, 비대면 시무식 갖고 새해 첫 업무 시작

진안군은 4일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2021년 신축년 새해 시무식을 비대면으로 갖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전춘성 군수는 “작은 물방울이 끊임 없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의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뜻을 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며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2021년 진안군 6대 핵심과제인 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 미래 인재 육성, 명품관광 추진, 소통행정 구현, 안전한 진안만들기에 다같이 동참하여 자랑스러운 진안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안군의 코로나19 확진상황에 대한 주민 여론 등을 살피고 군의 신속



한 현장 대응과 철저한 방역관리 상황을 전하며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시행

진안군이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최근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코로나19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 위험성이 급증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해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진안군민과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 된다.

보장항목은 총 17개로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불소녀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이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주민등록·실거주 확인 거쳐 최종 선정 지급

장수군은 올해부터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 이상)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의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해 노부모 1명당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

효도수당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주

민등록 및 실거주를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는 등 관내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서 ‘우수’ 선정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제12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에서 ‘우수’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시·도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사업성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인센티브시스템을 구축한 점, 물리적 환경

과 소셜 마케팅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한 점 등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조례’는 2019년 제정됐다.

또한 무주군보건의료원은 금연 환경 조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5월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포상금 800만원에 대해서는 혈압·혈당 측정기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며, 2021년 2월부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복지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현석 위원 수상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전현석 위원이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유공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주)다솔건축 인테리어 전현석 대표로서, 2016년 6월부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을 평가한다.

전현석 위원은 2016년부터 책임감과 역량을 갖고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통과 협력, 돌봄에 최선을 다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협의체

운영 기반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무주군 지역복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위원은 “그동안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과 함께 한 결과이고 끊임없이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라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도 무주군 지역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무주군 복지 향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매, 장판 및 저소득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지원에 전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상향

장수군은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상향 지원한다.

4월 군에 따르면 1월부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90%에서 95%로 보험료를 상향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 가입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농기계손해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 다.

종합보험 가입대상 기준은 동력경운기와 트랙터, 콤팩트, 승용관타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트럭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총 12종의 농기계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업지원사업 ‘한눈에’ 무주농기센터, 책자 발간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1년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농업관련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농업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녹지과의 각종 지원사업과 주요업무를 책자에 185쪽 분량으로 담았다. 책자는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농·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자 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정보 및 소득 관련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